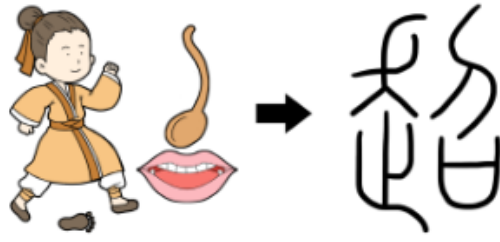


3(2)  
-  
421

회의문자 ①



超

뛰어넘을  
초

超자는 '뛰어넘다'나 '빠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超자는 走(달릴 주)자와 召(부를 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召자는 聿(맛있을 지)자와 마찬가지로 수저를 입에 가져다 대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러니 召자가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도 밥을 먹도록 누군가를 부른다는 뜻이다. 超자는 이렇게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召자와 走자가 결합한 것으로 누군가의 부름에 재빨리 달려가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이다.

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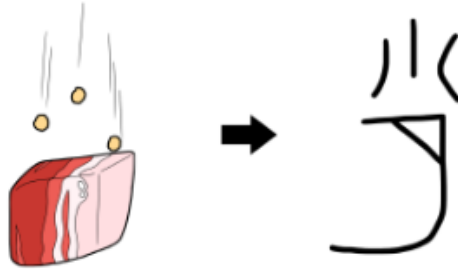
소전

超

해서

3(2)  
-  
422

회의문자 ①



肖

닮을/같을  
초

肖자는 '닮다'나 '모양이 같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肖자는 小(작을 소)자와 月(육달 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肖자에서 말하는 '닮다'나 '모양이 같다'라는 것은 '나의 모습과 닮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肖자에 쓰인 月자는 나의 육체를 의미하고 小자는 '작다'라는 뜻을 전달한다. 즉, 肖자는 '작은 나의 모습'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나를 닮아 태어난 후대나 나를 닮은 무언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肖

금문

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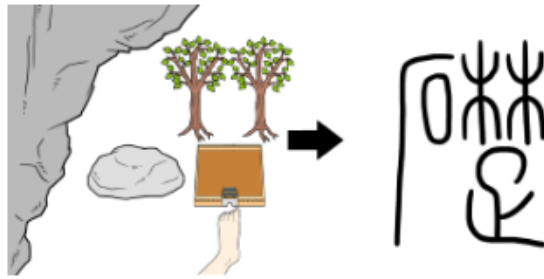
소전

肖

해서

3(2)  
-  
423

회의문자①



礎

주춧돌  
초

礎자는 '주춧돌'이나 '기초'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礎자는 石(돌 석)자와 礎(모형 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礎자는 나무가 우거진 곳에 발을 내딛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주춧돌'은 건물을 지을 때 땅 위에 놓아 기둥을 받쳐 주던 것을 말한다. 건물을 올리기 전에 먼저 놓아야 하니 "조석(礎石)을 다진다."라는 말도 여기서 유래했다. 발을 내딛는 모습을 그린 礎자와 石자의 결합은 건물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첫돌을 내디딘다는 의미이다.

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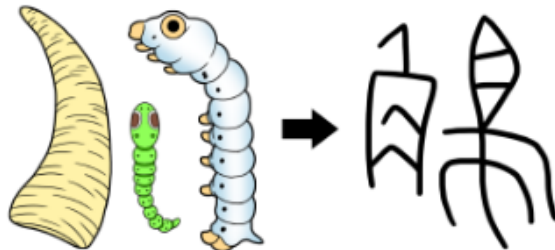
소전

礎

해서

3(2)  
-  
424

형성문자①



觸

닿을 촉

觸자는 '닿다'나 '찌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觸자는 角(뿔 각)자와 蜀(벌레 촉)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蜀자는 '애벌레'를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觸자는 뿔로 무언가를 들이받는다는 것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로 본래의 의미는 '찌르다'나 '받다'이다. 뿔이 있는 동물들은 심한 자극을 받았을 때 사람이나 동물을 들이받는 행위를 한다. 그래서 觸자는 '찌르다'라는 뜻 외에도 무언가에 의해 자극을 받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觸

금문

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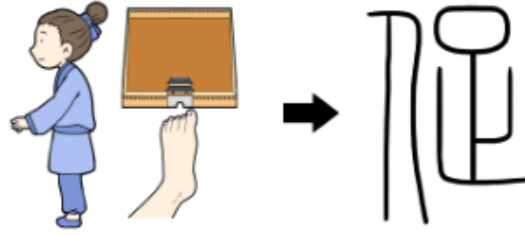
소전

觸

해서

3(2)  
-  
425

회의문자①



促

재촉할  
촉

促자는 '재촉하다'나 '다그치다', '촉박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促자는 人(사람 인)자와 足(발 족)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足자는 성(城)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발'이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그린 足자에 人자를 결합한 促자는 성을 함락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다. 促자는 바빠 움직이는 것 외에도 누군가를 바빠 움직이도록 다그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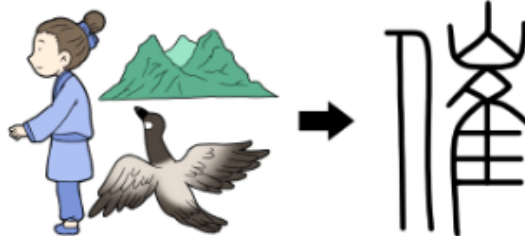
소전

促

해서

3(2)  
-  
426

형성문자①



催

재촉할  
최:

催자는 '재촉하다'나 '독촉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催자는 人(사람 인)자와 催(높을 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催자는 '높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催자에서 말하는 '재촉하다'나 '독촉하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인위적으로 강제한다는 뜻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재촉하다'는 促(재촉할 촉)자가 쓰이지만 催자는 최면(催眠)이나 최루(催淚)처럼 무언가를 인위적으로 재촉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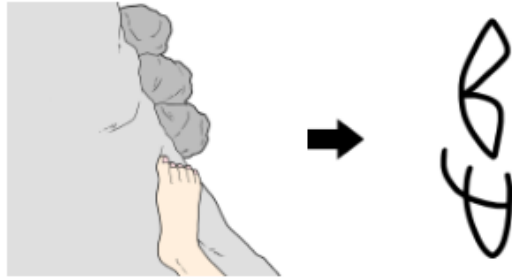
소전

催

해서

3(2)  
-  
427

회의문자㉠



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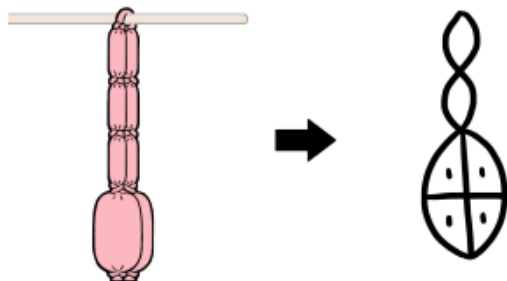
쫓을/따를 추

追자는 '쫓다'나 '거슬러 올라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追자는 辵(쉬엄쉬엄 갈 착)자와 阜(언덕 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阜자는 흙이 쌓인 모습을 그린 것으로 '언덕'이라는 뜻이 있다. 그런데 追자의 갑골문을 보면 辵자가 아닌 발을 뜻하는 止(발 지)자와 阜자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언덕을 향해 올라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산등성이 너머로 도망간 적이나 산짐승을 추격한다는 뜻이었다. 금문에서는 여기에 '갈'을 뜻하는 辵자가 더해지면서 길을 따라 추격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428

상형문자㉠



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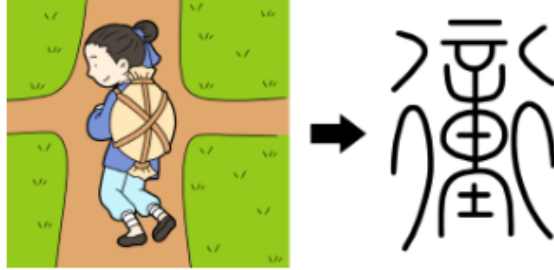
짐승 축

畜자는 '짐승'이나 '가축'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畜자는 玄(검을 현)자와 田(밭 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갑골문에 나온 畜자를 보면 끈을 묶은 동물의 밥통과 창자가 그려져 있었다. 밥통에는 점이 찍혀있는데, 이것은 음식물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다. 왜 동물의 창자에 음식을 넣어놨을까? 음식을 오래도록 저장하고 보관하는 방법의 하나는 동물의 창자에 음식을 채워 건조하는 것이었다. 순대나 소시지도 모두 이러한 저장법의 일종이었다. 畜자는 이렇게 음식을 비축한다는 의미에서 '쌓다'나 '비축하다'를 뜻했었지만, 후에 '짐승'이나 '가축'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牛(물 소)자를 더한 蓄(쌓을 축)자가 '비축하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429

회의문자 ①



衡

찌를 충

衡자는 '찌르다'나 '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衡자는 行(다닐 행)자와 重(무거울 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重자는 등에 붓짐을 지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무겁다'라는 뜻이 있다. 衡자는 본래 길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큰길은 다니기는 편하지만, 목적지까지는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衡자는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모습의 重자를 응용해 지름길을 찾아다닌다는 뜻을 표현했다. 길을 가로질러 간다는 것은 적의 허를 찌르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래서 衡자는 미처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맞닥뜨린다는 의미에서 '치다'라는 뜻도 파생되었다.

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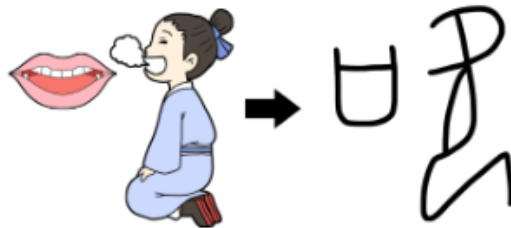
소전

衡

해서

3(2)  
-  
430

회의문자 ①



吹

불 취:

吹자는 '불다'나 '부추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吹자는 口(입 구)자와 欠(하품 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欠자는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하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吹자는 이렇게 입을 벌려 하품하는 모습을 그린 欠자를 응용한 글자로 입으로 바람을 '분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吹

갑골문

吹

금문

吹

소전

吹

해서